

## \* 인쇄기 공급업체

# 인쇄기공급 전년보다 50% 감소

인쇄기계 공급업체들은 지난해에 비해 판매 대수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향이 4색 위주에서 5색 이상의 다색으로 바뀌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라인 코팅장치 등이 부착되는 관계로 인쇄 유닛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4색 이상의 컬러 인쇄기계는 매년 100대에서 150대 가량이 수입되고 있는데 올해도 100대는 넘을 것으로 보이거나 150대 이상이 공급된 지난해보다는 상당히 낮은 실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에는 월드컵과 대통령선거 등 인쇄 특수를 겨냥해 인쇄기 도입이 늘었으나 올해는 경기 하락과 함께 특수 효과를 노릴만한 것도 없었기 때문에 보급률이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보급 대수는 감소했지만 유닛 수에서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인쇄기 대체시 사이즈가 커지고 성능이 향상된 점을 감안한다면 생산성 자체는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인쇄기 공급업체들은 대부분 내년에도 인쇄기 도입 경향이 5색 이상의 인쇄기와 양면인쇄기, 인라인코팅장치가 장착된 특수 기능을 갖춘 인쇄기들이 많이 도입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8색 양면기의 경우 지난해까지 도입이 7대에 불과하던 것이 올해는 이미 4대가 도입되었으며, 2대는 계약을 완료해 내년 초에 설치될 계획이다. 8색 양면기가 이 정도 수준이라면 양면기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높은 실적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인쇄기 도입 대수가 적은 것은

지난해의 경기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인쇄기 도입 계획은 대부분 12월부터 2월 사이에 가장 높은 계약률을 보이는데 지난해의 경우 월드컵 및 대선 특수를 누리지 못한 점과 연말 특수까지 누리지 못해 계약률이 저조해졌기 때문에 올해는 당연히 도입 대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 설비 투자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등의 대책으로 인해 설비 도입 호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년도 국내 경기가 올해보다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심리도 작용해 올 연말 연시에는 계약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도 나와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쇄기 전체의 수입실적을 보더라도 올 1월부터 3월 사이에는 2천만달러 이하인데 반해 4월부터 7월까지는 3천만달러 이상의 수입실적을 보여 연말연시의 계약률이 인쇄기가 들어오는 4월부터 7월까지 영향을 미쳐 수입액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올해의 인쇄기 도입률은 지난 연말연시의 영향이 컸으며, 지금부터 내년 초까지의 계약률이 내년도 인쇄기 도입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IGAS 이후의 계약을 상승과 내년의 드루파 이후의 계약을 상승 예상으로 내년에는 올해보다 높은 수준의 도입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윤재호 부장〉

